

주일에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에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에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기한 없는 목표는 허상

나는 노량진교육관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2025년 1월 1일부터 기도회를 연다고 기한을 두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맞게 공사속도가 조절되었고, 1일은 수요일에 배로, 2일부터 노량진에서 기도회를 열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그것은 목표는 세우는데, 목표를 이루 기한을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마련해야지’ 하는 목표를 정했는데, 언제까지인지 정하지 않으니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그 다음에 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파트는 평생 그림의 떡이 된다. 그러나 ‘5년 안에 이룬다’고 기한을 정하면 스스로 자신을 감독하여 목표에 부적합 것들을 제거하고 격려하며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목표는 마감기한이 있는 꿈이다. 공사현장마다 ‘D- 200일’, 이렇게 쓰여 있다. 공사기일을 정한 것이다. 그러니 기일에 맞추기 위해 그날그날의 공사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잠언에는 부지런의 표본으로 개미를 들었고, “개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잠6:6~8)고 말씀하셨다. 미물인 개미도 ‘먹이를 모은다’는 목표를 세웠음은 물론이고, ‘여름 동안’이라는 기한을 정했기에 근면과 성실로 부지런히 일한 것이다. 배짱이도 언젠가는 일을 하려고 했다. 다만 기한이 없으니 ‘내일, 내일’ 하다가 불쌍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기한이 없는 목표는 여름날의 한낱 꿈처럼 허상이요, 총알이 없는 총과 같아 형체는 있으나 추진력이 없고, 펑크난 타이어 같아 전진이 없다. 기한이 있어야 목표가 뚜렷해져 에너지가 생기고, 그 결과로 성과가 나오게 된다.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사는 동안’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2025년 목표를 세웠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한도 정하라. 기한이 없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다. 기한이 있어야 그것이 꿈을 향해 달릴 동력이 되고, 자신을 독려하여 그 목표를 이루게 된다.

성공의 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지난주, 신년 첫 수요일예배를 마친 다음 날인 1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새로이 확장된 노량진교육관에 집결했다. 대성전과 소성전, 복도까지 가득 찬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은, 목사님 말씀처럼 지난 90년대 반포 땅끝예수전도단 시절을 방불케 하였다. 그 광경을 보며 이들이 서울교회, 나아가 우리 교단의 영적 엔진이란 생각이 들었다.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 교단은, 우리나라는 절대 망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서울성전 건축을 제1차 목표로 기도의 불을 맹기신 것이지만,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고, 이 나라가 속히

막아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위기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전화위복의 길로, 전대미문의 역사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놀라고 칭송하는 국가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 목사님 말씀처럼,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날마다 ‘동해 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나라는 결코 망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합심으로 기

고 말씀하셨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쥐뿔이나 있다’고 늘 말씀하시듯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며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의 말씀이다. “너희는 나의 꿈이고 미래다. 우리 교단의 꿈이요, 우리나라의 미래다. 내가 항상 너희들에게 강조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지금 너희들은 배우기에 힘쓰며 부단히 노력할 때다.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라. 오늘의 계란을 먹어 치우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길러라. 비록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꾀라.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지의 세계에 호기심을 갖고 도전해라. 그러나 명심할 것



노량진 기도회(1월 2일 저녁 8시, 노량진교육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온 것처럼 이 나라에 어떠한 전쟁이나 사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지난 한 달여 간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보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셨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리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해 시월, 시청광장에 모여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국가적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가 그 사명에 부도내지 않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도하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는 서울성전 건축의 역사도 순전히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한다.

목사님은 2025년 새해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기적과 축복을 맞보자고 선포하셨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기적을 맞보고,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신년 설교들을 통해 강조하셨다. 특히 지난 주 토요일,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예배를 직접 인도하시며 ‘성공의 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단지 계단이 있을 뿐’이라

이 있다. 절대 조금하면 안 된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간은 가지만 절대 건너뛰는 법은 없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절대 엘리베이터는 없다. 오직 계단이 너희 앞에 있을 뿐이다. 오늘 최선을 다하며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다 보면 너희가 꿈꾸고 기도한 대로 전대미문의 기적을, 전대미문의 축복을 맞보게 될 것이다.”

노량진 기도회는 월~토요일 오전 5~7시에 새벽기도회가 있고, 월, 화, 목, 토요일 저녁 8~10시에 저녁기도회가 계속된다. 이 기도의 도가니에 모두가 동참하여 2025년 새해, 반드시 전대미문의 대역사를 맞보자.

한은택 목사



서울 중고등부 토요일예배



열정적으로 저녁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서울 대학청년부 토요일예배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1:1~28)



하나님도 미리 주셨다, 매사 미리 준비하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합니다. 그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빛이 있어서 그것을 감지 않으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묻자 그 여인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라고 답했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여인과 아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하니 그릇마다 기름이 찼습니다. 빌려온 그릇이 다하도록 기름은 계속 이어졌고, 그릇이 다하자 기름도 멈추었습니다. 그릇마다 찬 기름을 팔아 여인은 빚을 청산하고 나머지로 두 아들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에 전대미문의 기적을 맛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릇을 아주 많이, 끝도 없이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릇마다 기름을 부으실 것이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서울교회 성전 건축이라는 대업을 이루려고 합니다. 당연히 큰일을 이루려면 큰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엘리사가 과부에게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라.”고 했지요? 우리가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조금이 아니라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에 주의 종들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서울교회 성도들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릇인 우리에게 기름이 넘치도록 하실 것이고, 넘치는 기름으로 우리는 서울성전을 넉넉히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셨기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훼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것도 기도입니다.

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릇을 준비했기에 왕이 그 그릇에 조서뿐 아니라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준 것입니다. “성공의 길엔 엘리베이터가 없다. 계단만 있을 뿐이다.” 지난주 중고등부와 대학청년부 예배 때 제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냥 이뤄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신데렐라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복권이 당첨되어 순간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금방 정상에 올라간 것 같으나 다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쪽 내려갑니다. 지하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은 준비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 ‘커트라인만 넘자’ 하는 아이치고 커트라인 넘는 것을 못봤습니다. 대충대충, 얼렁뚱땅, 대강대강 준비하면 폭망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간당간당하게 준비했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니 대충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고, 다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잔치 문이 닫히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발을 갈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세요. 이걸 사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자와 대충 준비한 자의 결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준비하고 오르면 언젠가 성공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도 한 계단씩 올라가는 자가 마침내 이릅니다. 노아가 하루하루, 한 계단 한 계단 방주를 만들더니 마침내 구원의 방주를 완성했듯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때가 되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 바로가 두 번 연이어 같은 맥락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살찐 일곱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세약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되는데, 이는 곧 애굽 땅에 칠 년 동안 풍년이 들겠고, 그 후 칠 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든다는 꿈의 계시였습니다. 바로는 지체하지 않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 이에 대비하라고 명합니다. 바로의 명에 따라 약관의 나이로 총리에 오른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년이 계속될 칠 년간의 소출을 각 성에 비축하여 흉년에 대비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던지 바다의 모래 같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창41:47~49). 그렇게 준비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국은 물론이요,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 국가까지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애굽을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나가고, 해외에서도 교포들 위주로 집회를 하다가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밤을 낮 삼아 성경을 읽었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제 두 친구, 기도와 노력이란 두 친구와 동행했기에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이 있고,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청년부 예배 때 피아노 반주자에게 눈을 감고 ‘예수님 찬양’ 찬송을 쳐보라고 했습니다. 눈 감고도 잘 칩니다. 그게 그냥 되나요? 철저한 준비, 곧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 바로가 두 번 연이어 같은 맥락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살찐 일곱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세약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되는데, 이는 곧 애굽 땅에 칠 년 동안 풍년이 들겠고, 그 후 칠 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든다는 꿈의 계시였습니다. 바로는 지체하지 않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 이에 대비하라고 명합니다. 바로의 명에 따라 약관의 나이로 총리에 오른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년이 계속될 칠 년간의 소출을 각 성에 비축하여 흉년에 대비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던지 바다의 모래 같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창41:47~49). 그렇게 준비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국은 물론이요,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 국가까지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애굽을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철저히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빚기 전에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루가 천 년이신 하나님이 하루는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루는 물이 드러나라 하시며 차근차근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장차 우리가 거할 집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짓고 계시고, 그곳이 완성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만큼 성공하고, 노력하는 만큼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매사 철저히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브닌나 덕분에 사무엘을 얻은 한나



옛 어른들의 가정사를 들어보면 복잡할 때가 있다. 아버지는 큰일 한다며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집에 올 때 여인 한 분을 모시고 온다. 그리고는 또다시 나간다. 두 여인이 싸우는 것이 아닌, 형님 동생하며 잘 지내게 된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만일 한나와 브닌나가 잘 지냈다면 어찌 됐을까?

한나가 괴로워하자 착한 브닌나가 “형님, 왜 그러세요?” 물으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 괴로워한다고 하니 브닌나가 “형님, 우리가 남이요?” 하고는 “애들아! 다 모여라. 지금부터 너희는 큰어머니를 나보다 더 극진히 모셔야한다.” 하며 행복한 가정이 됐다면 사무엘서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브닌나는 예의(싸가지)가 없고, 한나와 사이가 안 좋아야 하고, 한나를 격분시켜야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 질병이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 그런데 젊을 때 병을 얻어 병원에서 자주 검사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오히려 장수하게 된다. 그래서 무병장수가 아닌 일병장수(一病長壽)라 한다.

각자의 삶의 문제는 축복으로 이끄는 고 속도로다. 질병 때문에 식단관리, 운동을 시작하고, 브닌나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

가고,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시험을 줬도 그 시험보다 간절함이 더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얻은 것 아닌가? 예수중심교단이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가장 격렬하게 들을 때였다. 모 종교잡지는 매 출간시 이초석 목사님을 표지모델로 쓰며 연일 비방하기 바빴다. 목사님은 그로 인해 그들과 돈으로 교리를 타협한 것이 아닌 그들을 축복하고, 이단 소리를 에너지 삼아 더 기도하신 결과가 예수중심교단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이단 소리가 듣기 싫어 타협한 교회들은 사분오열되거나 극심한 내부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걸 보며, 우리 교단과 목사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된다.

조개가 모래를 뱉어내면 그냥 조개구이 밖에 안 되나, 모래를 품고 진액을 쏟아내 더 오래 고통을 겪으며 더 많이 품을

수록 크고 멋진 진주가 만들어진다.

서울교회 때문에 조급해하는 분이 있는데, 이 문제도 더딘 것 같으나 우리 기도가 쌓이고 오래 품을수록 더 멋진, 더 큰 진주같이 만들어지리라 믿는다.

다윗은 사울 덕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시23편)와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뿐(삼상20장)이라며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 성군의 길로 나갈 수 있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감옥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닌나가 축복입니다. 질병이 때로는 관리 잘해서 오래 사는 복이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덕분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애써서 성장할 것입니다. 문제를 감사로 바꾸면 사무엘 같은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산예수중심교회 최연식 목사

우리를 향한 기대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총회장 목사님께 받은 말씀과 한없는 사랑, 2년에 걸쳐 연이은 필리핀 세부 집회에 참석해 밑알이 나마 헌신할 기회를 주신 총회장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지 못한 채 시작한 사업은 연거푸 사기를 당해 저와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총회장 목사님의 사업장 심방으로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십일조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율타리를 떠나지 마라.”는 말씀만 남기시고 총회장 목사님은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총회장 목사님의 심방이라 크게 기대했던 것에 비해 좀 서운한 마음도 가졌지만, 그날 저녁 기도 중에 ‘십일조, 율타리’, ‘십일조, 율타리’라는 음성이 몇백 번, 아니 수천 번 제 가슴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총회장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한 결과, 해외 무역사업이 확장되고 현재 땅을 매입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은 오로지 총회장 목사님께서 제 사업장 심방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나의 절실한 간절함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열었던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오고 꽃이 피듯, 우리 삶도 주님 붙잡고 인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다 보면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

어지러운 난국 중에도 전능하신 주님 붙잡고 귀한 승리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유년 시절, 보이스카우트 옷을 입고 싶어 절절히 갈망하다 그 옷을 입게 되었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옷을 입으니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당당해지고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총회장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일명: 뽕간판)을 하루하루 되새기고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나 회사, 학교,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느 곳에도 총회장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언은 내 삶 곳곳에 다 대입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고, 무슨 일을 계획할 때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꼭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만물을 상품으로 본다’, ‘남이 쓸모없다는 것을 쓸모있다는 눈을 떠라’ 등등, 수없이 우리에게 주신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과 잠언은 제 삶과 사업에 있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고,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주셨기에 오늘이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며, 총회장 목사님께서 오늘 이 시

간에도 성도님들을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건강의 복과 풍요로운 물질의 복을 받게 하려고 기도하고 계시며, 한 성도, 한 성도에게 기도의 열매가 결실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단의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총회장 목사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과 기도해 주실 때는, 한 성도 한 성도에게 거는 분명한 기대치가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총회장 목사님처럼 기도와 노력을 친구삼아, 새해에는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 누리서 성도 여러분의 진보를 총회장 목사님과 만인에게 간증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욱 도약하여 영·혼·육이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다(롬13:14).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안에 거하며, 2025년, 새롭게 달려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강요셉 피택장로

빈공간의 여유

인사동 골목의 한 화랑에서 ‘빈 공간의 여유’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을 마주했습니다. 큰 캔버스 위에 달랑 점 4개만을 찍어 놓은 유화였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보라는 작가의 의도가 깔린 듯했습니다.

공간은 낭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절대 휴식을 의미하고 새 창조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공간을 두는 것이 복잡한 설명보다 때로는 더 큰 웅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꼭 짜인 틀과 숨이 막힐 듯한 복잡한 구조에 익숙해 있습니다. 뭔가 조금 비어 있으면 불안한지 무엇으로든 그곳을 메우려고 합니다. 이제는 공간의 의미를 새로이 자리매김하면 좋겠습니다. 공간은 여유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삶에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공간이 있어야 남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게 차단된 우리 삶에 여유를 가집시다. 그 공간에 사랑을 심고, 낭만을 품고 흥을 북돋아 봅시다. 재물로 가득한 손을 풀어 그 손에 사랑이 일게 하고, 욕심을 버린 그 공간에 이웃을 가집시다. 인간의 지식과 꾀를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오시게 합시다.

적당한 선에서 마음을 절제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나라를 생각하는 여유로운 자

의 모습은 아름다움을 넘어 고고하기까지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다섯 끼니 먹습니까? 이불 두 채 덮고 잡니까? 자동차 두 대를 동시에 끌고 다닐 수 있습니까?

족함을 아는 자에게 여유가 있고 빈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에 감사하며, 오늘에 만족하는 삶을 삽시다. 여유 있고 아름다운 삶이 당신에게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웅달샘 중에서

양화진 외국인 묘지 안장 제1호 선교사

존 헤론 선교사(헤론1856~1890)는 1884년 4월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의 첫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당시 발생한 갑신정변으로 한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지자 일본에 머물다가 1885년 6월 21일 한국에 도착했다.

영국에서 태어난 헤론은 14세에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하였고, 1883년 테네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다. 모교 테네시대학 의학부 교수로 초빙을 받았으나 헤론은 한국 선교사로 지원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20대에 모교의 교수로 임명되는 명예로운 자리를 거절했다. 어느 부흥회에 참석해 기도하던 중,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땅끝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국행에 나선 것이다.

그는 서울에 도착해 서울 정동의 알렌 집에서 헤론 선교사 부부, 메리 스크렌턴 여사, 알렌 의사 부부와 함께 한국에서 첫 주일예배를 드리고, 제중원에서 사역을 시작하며 알렌을 도왔다.

그 후 알렌이 외교관직으로 변경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1887년 9월부터 2대 제중원 원장으로, 고종의 어의로 임명받았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을 돌보는 의사로서 헌신하였다. 그의 뛰어난 의학은 조정에서도 신임을 얻게 되어 종이품의 높은 벼슬도 받게 되었다. 제중원에 양반층은 주로 왕진을 요청했으며, 지방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도 적지 않아 개원 이래 첫 1년 동안 10,46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한다. 환자들의 대부분 질환은 말라리아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소화 불량, 각종 피부병, 성병(매독), 결핵, 나병, 기생충병, 각기병 등이 있었다. 당시 이질, 장티푸스, 천연두 등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기여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헤론은 서울 및 지

방을 순회하며 환자를 돌보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한국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나는 이곳에 하루도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병원 사역 외에도 성서번역에 참여하며 기독교 출판 사업인 ‘조선성경교회(현 대한기독교서회)의 창설을 기획하여 문서선교의 출발을 알렸고, 후일 한국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헤론은 의료 · 교육 · 전도 · 문서 · 여성 등 다섯 가지 분야가 함께 움직이는 ‘통합적 선교 신학’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힘썼다. 그의 열정과 헌신은 한국인들과 내한 선교사들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헤론은 동료들에게 따뜻하고 우정이 넘치면서도 보수적이고 엄격한 도덕주의자였다고 한다. 본국에 보낸 서신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학 기술을 시행하는 데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열망하며, 위대한 의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한국에 와서 사역한 지 불과 5년(1885. 6. 12~1890. 7. 16) 되는 해인 1890년 여름,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을 때, 다른 선교사들은 남한산성의 휴양지에서 쉬고 있었지만, 그는 폭염 속에서 서울까지의 먼 거리를 드나들면서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더위와 많은 업무로 과로한 상태가 되어 병이 들었다. 남한산성에서 요양하고 돌아오던 날 100리밖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소식을 듣고 아직 완쾌되지 않은 약한 상태에서 진료하다가 자신도 이질에 걸려 1890년, 발병 3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1890년 7월 26일, 한국 선교 활동 5년 만인 34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여 동료 선

교사와 한국인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남한산성 휴양지에서 밤새도록 가마 타고 집으로 돌아온 부인과 두 딸을 옆에 두고, “한국과 한국인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소.”라고 말한다. 헤론은 아내에게 조선에 남아서 선교의 일을 계속해달라고 하였다. 아내와 언더우드에게 “자신의 사역이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였다.

또한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조선인들을 부르게 하고 죽기 전 유언처럼 남긴 한마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임종하였다.

그의 죽음에 한국인 환자도 울고, 동료 선교사들도 울었으며, 그를 알고 있는 정부 고관들도 울고 말았다. 가난한 환자를 진료하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열정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다.

헤론의 갑작스러운 순교로 인해 시신을 묻을 곳이 없었는데, 고종에게 선교사 묘지를 요청하여 마포 양화진 땅을 하사받았고, 헤론의 시신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양화진 나무터 언덕의 묘지에 묻혔다. 이것이 양화진 선교 묘지의 시작이다.

양화진 그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게 주셨다.”(갈2:20)는 성경 문구가 기록되어 그가 한국을 사랑하고 헌신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5년의 짧은 선교사 생활이었지만 헤론은 자신의 모든 안락한 삶과 누릴 수 있는 가치들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따라 이 땅에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종으로 살았다.

김종춘 목사

2025학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원서마감: 2월 16일(주일) 문의 : 02. 533. 9191

타인에게 복음이 되는 삶

얼마 전, 직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몇몇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싸움인데 욕설이 오가다 보니 일이 커져 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다른 직원들이 해결을 요청하며 저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문제는 욕설을 뱉은 직원이 기독교인이다 보니 직원들의 모든 꾸념 끝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저는 깊이 기도하며 문제의 직원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시지요?”, “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더 깊은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자체가 복음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영이

되어야 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 굿은일에 나서며,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우리 생각을 못 박아야 가능합니다. 나에게 무례한 사람에게 왜 참아야 하나고요? 예수님도 무례했던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요. 왜 나는 욕하면 안 되냐고요? 우리가 예수의 얼굴로 살아야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툼 사람과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지, 상대가 얼마나 나빴는지 설명하기에 바쁘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니까요. 그분들이 받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받고 살아왔으니, 그들에게 복음이 되겠다는 각오로 모두에게 사과하며 더욱 따뜻하고 정성을 다해 그 모든 분을 섬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후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연과

다툼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마음을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 며칠 후 모든 갈등이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싸울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다시금 자신을 꺾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기로 한 그분이 저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고, 이는 제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쁨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혹여 분쟁과 다툼으로 마음이 어려워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고 품으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봅시다. 분명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나가고 전대미문의 기적을 맛보는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인명 집사

체력을 길러야지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 첫째 아들이 내게 말한다.

“아빠, 저는 제 꿈이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렇구나, 아빠도 아직 찾는 중이야.”

그러고는 덧붙였다.

“꿈을 일찍 찾는 사람은 참 복이지. 그런데 꿈을 나중에서야 찾는 사람도 있어서, 그때까지는 내가 할 본분을 다하며 계속 찾아야 해. 그래서 아빠도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지금 일이 아빠의 꿈은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꿈을 계속 찾는 중이야.”

이렇게 아들에게 설명은 했지만, 꿈을 빨리 찾는 사람이 부럽기도 하다. 유치원 때 내 꿈은 엄마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목사님 안수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굳이 의사가 되지 않아도 되었다. 물론 어렵다고도 느꼈다. 중학생 때 잠깐 가수의 꿈을 꾸다 백화점 사장님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백화점 사장님은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라는 말을 듣고 금방 접었다. 고등학생 때에는 CCM 가수들을 양성하는 CCM 기획사를 꿈꾸었다. 대학생 때는 공방이나 호텔에서 일하고 싶었다가, 결혼 후에는 가정을 잘 책임질 수 있는 회사에 다니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아니, 현실에 맞춰졌다고 해야 하나.

신바람 나는 일이 천직이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 바람이 난 적이 없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주변 모두가 아는 일도 천직이라 하는데, 그런 적도 없는 것 같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다가 거기에 도달하면 또다시 연결되는 다른 목표가 생긴다고도 하는데, 아직까지 내게는 이직이 전부였다. 그런데 최근에 들은 이 말이 내 마음에 확 와닿았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할지 모르겠을 때는 운동을 하며 체력부터 길러라. 그래야 정말 내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에 도전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

아들에게 다시 말했다.

“아들아, 우리 꿈을 찾을 때까지 체력부터 길러놓고 있자!”

박찬영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